

청년의 시민성과 정치영역의 청년

-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민주주의와 청년(1)

- 민주정? 민주주의? Democracy?
- 민주주의는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 그래서 민주주의는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 민주주의는 내부에 어떤 이념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 결사체들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함(민주주의의 틀에 내용을 히틀러의 주장으로 채우면 나치즘이 되는 것임)
- 민주주의는 다른 가치/의견/세계관이 정부를 운영할 기회를 갖는 것, 이를 가리키는 말이 '대안 정부' (alternative government)(야당이 있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의미함)

민주주의와 청년(2)

- 그럼 의견은 무엇으로 조직되는가? : 갈등! 세상에 싸움(갈등)만큼 의견을 쉽게 강하게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민주정치 :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 갈등을 다루는 갈등체계
- 한 사회 주요 갈등의 최종 집합체를 정당이라 부를 수 있음, 한 사회 주요정당의 숫자는 그 사회의 주요갈등의 숫자. 지금 한국은??
-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음. 다양한 결사들이 결집해서 조직을 구성. Ex.) 노동조합, 협회, 시민단체, 경영단체
-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갈등의 치환'과 '자율적 결사체의 미약함'(청년단체들은 어떤 결사체?)

정치의 변화는 갈등구조의 변화

-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 공고화는 늘 당대 사회의 어떤 균열을 의미하는 새로운 시민 집단들이 자신의 갈등을 들고 민주주의 정치의 장 안으로 인입 될 때 일어남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명제가 의미하는 바처럼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치 는 사회경제적 균열을 민주정치의 무대로 올리지 못하고 퇴행적인 지역 간 대립 구도 라는 유사갈등을 중심으 재편
- 지역대립 구도가 현실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즈음인 2000년대 중후반 한국정치는 유례없는비극들 겪으며 다시 민주(민주화 세력) 대 독재(산업화세력)로 회귀
- 이러한 한국정치의 낡은 균열은 97년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집중되던 사회의 특정 집단(청년, 여성, 이주노동, 지방 등)들을 소외시키고 '무당파', '정치적 냉소주의', '제3 정치세력' 등으로명찰을 바꿔가며 거대한 '불만의 정치'를 구성

어떻게 '호명(呼名)'할 것인가?

- 시민 개개인에게 정치적 평등에 기초해 1인 1표의 권리를 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정치 행위'의 본질은 결국 '시민집단'을 '호명(呼名)'하는 것
- 시민집단을 특정한 '이름'으로 호명하는 과정을 통해서야만 시민들은 수 백만 가지 특성을 가진 무의미한 개별 유권자에서 현실의 '사회'를 '대표'하는 '갈등'의 이름으로 현실정치의 무대로 호출
- 2010년대 어느 시점부터 '청년'이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기 시작함(정치적 주체로의 청년의 등장)
 -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아니라 '청년노동자'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가 아니라 '3포세대', '88만원세대'

역사로 보는 한국정치의 주요갈등

- 해방직후 – 좌우 이념갈등 (사회경제적 이해에 기초한 갈등이었던지는 평가해볼 지점이 있음)
- 한국전쟁 이후 – 권위주의 군사정권(남북문제/민주주의와 권위주의)
- 87년 민주화 이후 –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감정(지역갈등이 아님!) 이것을 '갈등의 치환'이라 부를 수 있음
- 97년 이후 - ?????(분배와 성장?, 민주와 독재?, 기득권과 시민?) – 최근 경향은 오히려 과거지향적 갈등?
-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세대

- 세대론을 문화 혹은 담론(즉, 꾀대론)으로 소비하던 그간의 시도들과 다르게 세대론을 물질화해서 경제적 자원 배분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분석. 세대효과가 계급을 강화하고 다시 계급이 세대효과를 더 강화
- 현재의 2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노동시장 참가자 및 은퇴자들은 두 차례의 금융 위기가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을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겪음으로써 소득과 자산의 축적에서 극적으로 다른 경험
- 산업화 세대의 네트워크는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미국의 후원아래 일본을 따라잡고 극복하고자 하는 체제 외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이념을 중심 구축. 386세대의 이념과 네트워크는 산업화 세대의 주도하에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권위주의적 폭압과의 대결의 산물. 기본적으로는 체제 내부의 현실적 억압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평등주의 이념을 자양분으로 했으나 90년대 이후 평등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두 가지 상이한 이념을 내재화
- 산업화 세대가 농촌 사회에서의 비롯한 강력한 협업과 위계의 원리(연공서열제, 조직 충성)를 국가 관료제와 기업조직에 최초로 이식했다면 386세대는 그 위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고용유연화 등)를 결합

대표, 선거, 대의

- 현대 민주주의란 결국 '대표'를 뽑는 것. 그리고 대표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되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것
- 정치에서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 시민집단의 얼굴을 닮은 사람, 그러나 탁월함이 있어야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의 개념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음
-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과정을 말함. 그러나 단순히 대표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정당에 대한 심판, 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이견들이 경쟁하고 조율되는 과정(최대다수를 얻기 위해 조율되는 과정이기에 갈등의 강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정치와 시민, 선거

- 우리가 정치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완벽한 복종이나 도덕적 완전무결성이 아님
- 결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더 낮게 만들 수 있을 방안과 그에 대한 명료한 실천
- 정치가도 훌륭한 활동가도 '인간 영혼의 구원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그리고 시민들, 회원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정치나 활동은 '자아찾기'가 아님.
- 민주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하듯이 정치도, 운동도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비범한 존재여야 할 것임
- 우리가 선출하는 정치인은 '봉사자'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라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함